

광주창의융합교육원,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7월 30일까지 초·중학교 17개 학교 총 100학급 2,303명 대상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내 체험을 전면 중지함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6월 30일~7월 30일 운영한다.

1일 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해 학교 밖 체험활동이 전면 중지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존 원내 7월 체험학습이 예정됐던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사전 신청을 받아 초·중학

교 17개 학교, 총 100학급, 학생 2,303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의융합교육원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 교사 및 해설사의 연구를 거쳐 학생 개인별 체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과학체험 프로그램은 STEAM 체험·무한상상·창의체험·로봇과학·생명과학·과학실험·창의체험·항공과학·빛과학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주제를 선

정해 운영된다.

수학체험 프로그램은 상호지 지구조를 이용한 공, 정다면체 무드 등, 요시모토 큐브, 거미 블럭 입체도형, 매니폴드, 라틴방진 등 체험활동을 통해 대수, 평면·공간 기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산초등학교 한 학생은 "체험 내용이 재밌었고 망원경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정말 좋았다"며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체험 수업을 받다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깜짝 놀랐다"고 말

했다.

창의융합교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학년·학급·동아리 단위의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러미를 제작해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가정에서 즐기는 수학 프로그램'을, 지난 5월 '가정에서 즐기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프로그램 신청 가정에 '과학·수학·전문 체험 꾸러미'를 제공한 바 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9월까지 연장

노·사·정 대화 취지 존중... "인건비 부담 완화로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 기대"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당

초 휴업·휴직수당의 50~67%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 특례는 지난달 30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40여일간의 노사정 대화 결과, 지원금 특례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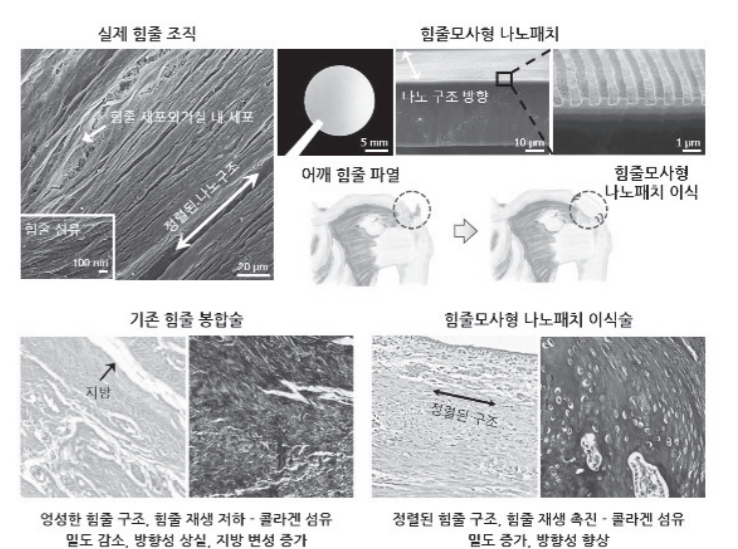
다만 10월1일부터는 다시 예전과 같은 최대 67%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

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전남대 김장호·김명선 교수팀, 미국화학회 선정 '6월의 한국 주요논문' 나노기술 이용한 어깨힘줄 파열 치료법 개발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만성 퇴행성 어깨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소재부품을 개발했다. 전남대 김장호 교수(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김명선 교수(정형외과학교실) 연구팀은 인구의 50% 이상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면서도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원천적인 치료법이 없는 '만성퇴행성 어깨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소재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또 이 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회 학술지 ACS Omega 최신호에 게재되었고, 미국화학회가 6월의 한국 주요논문으로 선정했다. 전남대 연구팀은 힘줄 조직이 정교한 나노패턴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착안해 이를 모사한 힘줄 나노패턴 지지체를 개발하고, 토끼 동물모델에 실험한 결과 손상된 어깨 힘줄

을 효과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만성 퇴행성 어깨힘줄 파열 질환은 완전한 치료가 어렵고, 치료에 사용되는 생체재료부품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기술로 어깨힘줄 파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광주시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김우찬 학생(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이 주저자로 참여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삼척 등 5개 지자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과기부·지자체, 각각 10억원 분담... 놀이와 체험 통해 과학적 호기심·상상력 향상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 등 기초지자체 5곳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생긴다. 과기부·지자체, 각각 10억원씩 분담,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조성되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다.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과 맞물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어린이들이 부모와 쉽게 이곳을 찾아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엔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022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다.

문체부,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 30개 단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축소된 지역문화기획자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

획형' 1개 단체와 '실현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현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사장 한승교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 135-9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청담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 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 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음식물 분쇄처리기

TGGS·황금맷돌 라벤더·황금맷돌 프리미엄 ·한국상수도협회·KC전기안전인증



36개월 무상보증
7일간 무료체험
+이전설치가능+



편리한 작동방식



리모콘 타입
리모콘은 사용시기에 편한 장소에 부착하시고 리모콘으로 작동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페달 타입
설거지 중에도 발로 페달을 밟으면 작동됩니다.

| 본사·공장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85, 301(호계리, 상보 B/D)
| 사업본부 : 인천시 서구 청라라이프 122번길 7, 1층 | 032-876-6905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등을 검토,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센터의 설치에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아파트 구조(건폐율·층수·주차대수·방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료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의 세대당 전용

면적이 30㎡ 미만이면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한다.

아울러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배관공법도 다양화한다. 그동안에는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배관을 바다 슬래브 아래에 설치, 아래층 세대 전장으로 노출시키는 층하 배관공법만 규정했다. 앞으로는 배관을 해당 층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층

상배관공법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꽃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꽃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됐다.

주택의 부엌과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연기·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자

인천서부특수교육지원청, 장애 인식 개선 위한 인형극 운영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은 지난 7월 8일부터 무지개유치원을 시작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특수학급 미설치교 공·사립유치원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을 실시한다.

'장애인식개선 인형극'은 새로운 가치관을 성립하는 유아기에 나와 다른 친구의 행동과 마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 장애 이전에 친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장애인식개선 인형극'은 교육극단 문월드, 아이컴퍼니와 연계해 인

형극을 신청한 관내 총 7개 특수학급 미설치 공·사립유치원의 유아 및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형극을 관람한 한 교사는 "유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라볼 수 있었으며,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서 친구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수교육 담당 관계자는 "이번 장애 인식개선 인형극을 통해 유아들이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철호 기자 cch@

호남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초청 간담회

오주 총회장 "시민사회단체 역할 증대, 시정 발전 지혜결집 힘 모을 것"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이 7월 1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주) 상임공동대표(각 단체대표) 및 상임고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재유 전 광주시장, 김경천 전 국회의원 등 고문단과 오주전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재 광주 홀리클럽 대표회장, 양희창 유촌문화포럼 대표, 김용배 국제청소년문화연맹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서 각 단체대표들을 모시고 코로나19 이후의 학교발전 방향과 지역발전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AI시대와 신산업 성장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사회의 중추인력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주 총회장(전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답사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시민단체들의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인공지능, 광주형 일자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결집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고문들도 한목소리로 "광주시민사회단체 설립과 발전

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故 이화성 호남대학교 설립자님의 유지를 받들어 호남지역의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시킨 박상철 총장의 노력과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지역 각계 대표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와 광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 색상·글자체 변경 가능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 완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은 변경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무안교육지원청, 합동 방역생활 지도

남악 일대서 코로나 19 확산 대응 위해 홍보 활동 실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지난 7월 8일 무안과 목포의 인접지역인 남악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목포교육지원청과 함께 목포-무안 합동 방역생활지도도 실시했다.

이번 목포-무안 합동 방역생활지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근 지역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과 지역을 넘어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공동 생활 지도를 위해 이루어졌다.

남악 일대의 PC방, 오락실 등 다중

이용시설과, 학생과 시민이 모이는 공원 등에서 개인 방역을 위한 현수막 홍보를 실시하고, 외출 자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안내와 함께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배부했다.

정재철 무안교육장과 김재점 교육장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서로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자"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액상분필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산조달담당
- 프로젝트 및 영상기기, 음향 설비공사
- 전자철판, 문서세단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말끔히 해결

불용컴퓨터 및 중고컴퓨터 전문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정보누출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전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21세기 환경산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자원의 수거율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폐자원에 대한 최대한 재활용화를 통해 부족한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환 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

문화적 소양 쌓기... “모두 균등하게”

인주중, 소소담 개관식과 함께 ‘찾아가는 학교 미술관’ 개관



인주중학교(교장 윤건선)는 지난 7월 2일 소소담 개관식과 함께 ‘찾아가는 학교 미술관’을 개관했다.

‘찾아가는 학교 미술관’은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인 학교에 미술품을 임대하고 전시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학교 미술관’ 개관은 인주중학교의 소중한 사람들이 답소를 나누는 공간인 소소담 개관식과 함께 진행됐다. ‘찾아가는 학교 미술관’ 개관식에는 인주중학교 윤건선 교장, 광희숙 교감, 왕미숙 행정실장과 교직원, 김정

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팀 대변인, ㈜정인미디어 대표 겸 케릴라뉴스 발행인 최도범 작가, 오정훈 ㈜정인미디어평생교육원 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학부모회 임원진,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학교 미술관’은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생활 패턴으로 받는 정신적인 혼란과 질병에 대한 공포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감성을 자극

하는 문화적 백신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건선 교장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 이 공간을 구성했다. 공간을 통해 시정각을 활용해 힐링이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인주중학교 교육 가족공동체 모두의 감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도범 작가는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배운다고 모두 박사가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갈 리더가 된다.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 무언가 하나,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두 맘 흘러준 비한 이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th@



안심하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

인천영종초, 5학년 학생 210명 대상 미추홀 참물 과학교실

인천영종초등학교(교장 여운경)는 6월 29일~7월 3일 5학년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미추홀 참물 과학교실’을 운영했다.

‘미추홀 참물 과학교실’은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간단한 실험 학습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 물의 절약 방법 등에 대해 학급별 한 시간씩 실시하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먼저 맑음이 과학교실에서는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영상물과 설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고, 진흙가루가 포함된 혼탁한 물이 깨끗하게 변하는 과정의 시연을 통해 강물이 정수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깨끗해지는지를 보여 줬다.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학

생들은 신기해하는 표정이었다. 여과기를 통해서 걸러진 깨끗한 물속에는 미생물이 들어 있어 소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활성탄을 이용해 소독 과정에 투입된 염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마지막으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수돗물 관련 퀴즈 게임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새로운 사실을 재미있게 익혔다.

‘미추홀 참물 과학교실’에 참가한 김시우(5학년) 학생은 “우리가 매일 쓰는 수돗물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에 놀랐다. 과학교실을 통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태호 기자 kth@

인천갑곶초, 자연 친화적 인식 더 높이자

교내 유희 공간 찾아 야생화 단지 등 생태학습장 조성

갑곶초등학교(교장 최형목)는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생태감 있는 학교,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내 유희 공간을 찾아 야생화 단지 등 생태학습장으로 가꿨다.

먼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거북이 텃밭 사업’에 선정돼 월에 감사와 모종을 지원받아 갑곶초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의 꽃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담장 아래 토종 야생화 단지를 만들었다.

이러 야외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롱박 울타리’ 조성,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생 화분을 조성했다.

새로 단장된 학교 야생화 단지를 보고 2학년 한 학생은 “아침에 등교하면 다양한 꽃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심윤희 교사는 “농촌 지역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고 직접 자연의 모습을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형목 교장은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조롱박 울타리’ 조성,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생 화분을 조성했다. 갑곶초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식장과 지속발전가능교육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철호 기자 cch@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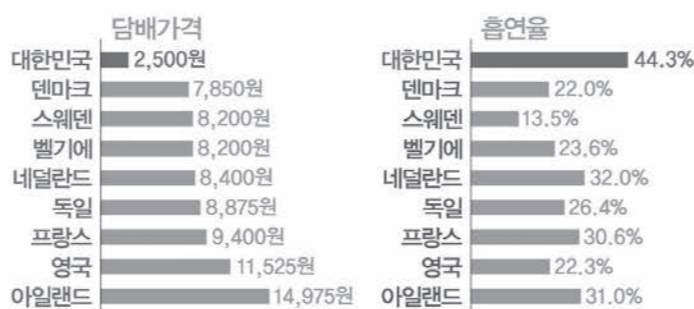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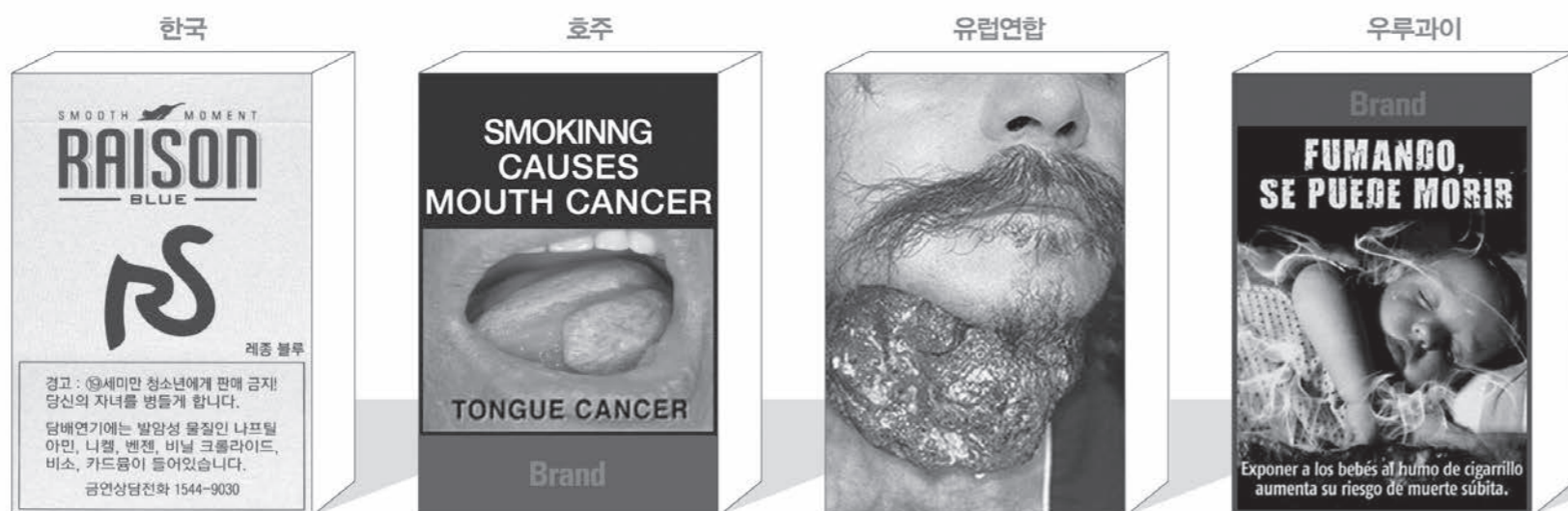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
-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2.9배~6.5배 높음
- (여성흡연)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위험, 영유아 돌연사 위험 증가
- (청소년흡연) 담배 의존성과 질병사망 위험도가 더욱 증가
- (중독성 1위)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 중독성 높음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을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 EU담배규제위원회, OECD



각국담배 경고문구 비교



부평공고, 국방인력 육성 경쟁력 강화

1기 해병대 軍 특성화고 발대식 개최

부평공업고등학교(교장 이종윤)는 지난 6월 24일 2020년 1기 해병대 군 특성화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부평공업고등학교는 2019년도에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 6월 18일 해병대 제2사단과 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는 현재 해병대 군 특성화고 자주포 조종 1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 중 자주포 실습과 안보체험 등을 이수하는 1기 학생들

은 2021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18개월간의 병 생활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된다.

이종윤 교장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인천의 국방 수요에 특화된 군 전문기능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면서 “국방인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 관련 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학·군·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철호 기자 cch@

혁신적 창조성 가진 인재로 키운다

인천하점초, 특성화 교육과정 실현 위해 꿈씨앗학교 운영

하점초등학교(교장 나인태)에서는 폭넓은 이해와 습득한 지식을 통합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창조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실현을 위해 꿈씨앗학교를 운영했다. 하점초 꿈씨앗학교는 1-6학년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26일까지 운영됐다.

우선 마을에서 배우고 익히는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마을 연계 프로그램과 학년 교육과정을 연계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했다.

활동 장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가능한 장소로 선정했다. 꿈씨앗학교 운영으로 행복한 미래 인재 키우기를 목표로 한 채움 프로젝트, 배움 프로젝트, 탐파 프로젝트로 구

성했으며 내 친구 다육이 화분 만들기, 희망 담아 솟대 만들기, 압화 공예 활동, 농촌에 다 있네, 하나는 모두를 위해·모두는 하나를 위한 학생자치 활동, 나를 찾아라! 3-6학년 진로검사를 실시했다.

참여한 6학년 최지원 학생은 "꿈씨앗학교에서 한 활동들이 하나하나 인상 깊었어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한 발짝 더 꿈에 다가 가게 됐어요"라고 말하며 꿈씨앗활동의 소감을 밝혔다.

나인태 교장은 1학기 꿈씨앗학교를 종료하면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서의 역량교육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 창의성과 미래사회의 지식과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철호 기자 cch@

“우리 모두 아름다운 환경 만들어요”

인천합일초 4학년 큰사람 여름학교 생태교육 프로젝트 6년째 지속 운영



합일초등학교(교장 김미자)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큰사람 학교'가 6년째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큰사람 여름학교 4학년 교과심화프로젝트는 생태교육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주제중심 생태 프로젝트의 주제는 '우리 마을 아름다운 菊花 저수지' 이

며, 4학년 아이들은 우리 마을의 생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국어 '제안하는 글쓰기'와 사회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을 중심으로 수학, 미술, 음악, 창체수업과 연계해 운영된다.

생태프로젝트 활동으로 거리캠페인

을 하기 위한 천연염색하기 및 생태 캠페인 우산 만들기를 준비해 4학년 학생들이 직접 강화를 거리로 나섰다. (지난 7월 2일 목요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모두 다함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아름다운 강화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미로 거리 캠페인이

진행됐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강화읍 및 강화군청(강화군 중심지) 근처에서는 이동을 멈추고 소리를 높여 주민들의 눈길과 동참을 이끌어 냈다. 합일초 4학년의 지속적인 생태프로젝트 수업이 기대가 된다.

최철호 기자 cch@

“학원서 코로나19 감염 더 이상 없어야”

‘인천시교육청 학원방역대응반’ 구성 및 합동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성훈)은 5월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5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학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학원방역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 학원방역대응반'은 △학원(교습소) 방역 실행 계획 수립·보고 △합동 방역 현황 관리 및 공유 △학원 방역 지도·점검 △유사시 긴급 업무 협조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 대상인

대형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감염병 발생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

서상교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출입자 명부 관리와 증상 여부 확인, 학원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 등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학생들의 능동적 독서환경 조성

인천청람중, 청라국제도서관과 업무협약식 체결

인천청람중학교(교장 김상철)와 청라국제도서관(인천미추홀도서관 분관, 관장 전표순)은 지난 6월 24일 인천청람중학교에서 서구교육 혁신지구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 독서문화 발전 및 나눔 정신 확산을 위해 상호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인천청람중학교와 청라국제도서관은 독서 교육 및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 재능기부, 독서문화프로그램 적극 참여 및 지원, 상호 두 기관 간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와 도서관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독서 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이 계속돼야 함에 두 기관의 업무 협약식 체결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청람중 3학년 재학생 22명으로



구성된 독서시사 토론 동아리를 구성해 미추홀도서관에서 발간한 '2020 미추홀북 독서 토론 매뉴얼' 책자 활용 및 추천 도서를 선정해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고 독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라지역의 교육기관과 도서관이 상생 발전해 이 지역의 인재 양성과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 본다.

최철호 기자 cch@

인천계양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확대

참여 기관 선정 도서 일괄 대출 서비스...11월까지 운영

인천시교육청계양도서관(관장 양부석)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은 도서관별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과 함께 읽고, 선정된 도서와 관련해 다양한 도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계양도서관에서는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참여 기관의 선정 도서들을 종합자료실에서 일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편 책이름 이용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후 최대 한 달 동안 여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계양도서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양구 지역 이용자의 독서 생활 편의를 돕고,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계양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독서문화과(032-540-4452)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호 기자 cch@

우리는 언제나

HAPPY+ SCHOOL

김기택의 행복배움학교 생각

희망을 노래 한다

“인생이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 are going to get,

김기택 지음

'코로나19 꼼짝마!' 애플리케이션 제작

인천시교육청, 현장 보건교사들과 학교안전화/T/F팀 함께 개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코로나19 관련 애플리케이션 '코로나19 꼼짝마!'를 제작했다.

'코로나19 꼼짝마!' 애플리케이션은 코로나19에 대한 건강관리, 대응, 보건교육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현장 보건 교사들과 코로나19 학교안전화지원 T/F팀이 함께 개발·제작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했으며, 승인과정을 거친 후 교육구성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자가진단(학생) △자가진단(교직원) △의심 증상 대처 △슬기로운 학교생활 △감염병 경보단계 △Q&A의 6개 메뉴로 구성됐다.

'자가진단(학생, 교직원)'에서는 학생(우리 반) 건강 상태 자가진단하기, 나의 동선 기록하기, 건강 체크하기 등 가정·학교에서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등교 중지, 자율 보호 등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다. 학생은 등교 전에 '학생건강 상태 자

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교직원은 학생을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함으로써 자기 건강관리 역할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의 확진자 및 접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주변 의료기관을 지도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생·교직원·학부모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족집게 Q&A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기 건강관리 역량의 향상과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교육구성원이 건강의 주체가 되기 위해 '코로나19 꼼짝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앞으로 도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시민교육 내실화 도모

중학교 자유 학년제 담당교사 22명 대상 '2020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사 연수' 운영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북부 중학교 자유 학년제 담당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2020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천교육의 중점 과제인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이해 △문화를 알면 동아시아가 보인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실제, 총 3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연수는 인천시교육청 이성일 장학사의 강의로 시작됐고, 동아시아 시민 양성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인천과학고등학교 최윤경 교사의 동아시아 시민 교육과 지역 기반 학습을 연계해 실시간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Padlet)으로 실습 활동을 진행해 참여 교사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참석한 교사들이 '삶을 위한 수업'을 읽고, 덴마크의 시민교육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또한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시민교육 '나는 동아시아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 수업 적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연수에 참여한 부광중 교사는 "교사가 먼저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수업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과 교과 융합 수업에 도움이 됐고, 동아시아 시민 교육에서 나아가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철호 기자 cch@

코로나19 이후 온·오프라인 마을 교육 대안 찾기

인천시교육청, 마을 교육 내실화 도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7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학교와 마을이 만나다'란 주제로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마을 교육의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2020 마을연계학교 모델 학교 담당교원, 마을교육활동가, 운영지원단 등 민·관·학 교육 주체가 모여 마을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마을 교육의 경험을 나눴다.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구현하는 학교이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17교(내가초, 불은초, 삼성초, 송해초, 양사초, 인천구월서초, 인천동수

초, 인천명현초, 인천부내초, 인천새마을초, 인천서흥초, 인천석남초, 인천소양초, 인천송림초, 조산초, 하점초, 합일초), 중학교 4교(선학중, 영흥중, 인송중, 청천중), 고등학교 4교(대청(중)고, 동산고, 인성여고, 인천송천고)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조산미 마을교육지원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배움 및 돌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더욱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욕구 해소

'온라인 스테이 앳 홈 챌린지' 참가자 모집 연장

인천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관장 김경미)에서는 청소년포살대회 비대면활동으로 온라인 스테이 앳 홈 챌린지 모집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고자 한다.

인천 미추홀구 내 14~19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소년 1명씩 개인으로 참여하고, 모집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온라인 스테이 앳 홈 챌린지'는 청소년포살대회 프로그램을 대체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으로 실의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욕구해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방법은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http://www.icyouth.or.kr)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icyouth@nate.com) 또는 팩스(032-884-2024)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수련관(032-887-5270-2)으로 하면 된다. 김태호 기자 kth@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운영위원 네트워크 온라인 총회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은 7월 10일 관내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 네트워크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동부 학부모 운영위원 네트워크 온라인 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이뤄졌으며, 학교별 운영위원 간 소통 및 정보교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2020 동부 학부모 운영위원 네트워크' 시작을 알리고자 진행됐다.

본 총회에서는 학부모 운영위원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고, '나눔, 도움, 도움'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지구별 온라인 네트워킹에 대해 알아보고 소통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한광희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자치 실현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로 나아가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th@

K 경 록 국내유일, 부동산 전문교육 모태 60년 전통과 노하우

따라만 하세요!

100% 합격대명사

경록 공인중개사

수강기간 1년 + 1년(2년 수강) 프로모션 진행!!!

특별 할인 및 혜택!

**최다
교재 지원**

**수강료 할인
최대 83%**

**특별
사은품**

공인중개사 전과목 풀패키지 1+1
(2018년도 시험기간까지 수강 가능)

DOWN

할인

전장소비자가 2,260,000원

특가 690,000원

(태블릿 PC 무료 증정)

수강기간 2018년 11월 30일

상품구성 공인중개사 전과목 (오리엔테이션 강좌) + 스페셜 기본이론 강좌 + 스페셜 과목별 문제풀이 강좌

교재 최신판 교재 12권 지원 (310,000원 상당) + 기본서 6권 + 과목별 문제집 6권

특별사은품 100,000원 상당의 경록 옥션 전국회원권 1개월권 + 삼성 태블릿 PC 무료 증정

추가혜택 고화질 동영상 강의 + 모바일 강의 + 실시간 모의고사 무료 응시 + 최근 3년간 기출문제 해설특강 + 경록 학습평가 지원 + 1:1 학습관리 지원 + 경록 5,000만 부동산 상식강좌 제공

추가이벤트 무상제공 삼성 태블릿 PC

SM-T280 (SAMSUNG)

- ▶ 177.7mm WXGA (1280×800) TFT LCD
- ▶ 1.3 GHz Quad Core Processor
- ▶ 1.5 GB RAM
- ▶ 5.0 MP AF + 2.0 MPVT Camera
- ▶ Full HD Playback & HD Recording
- ▶ 4,000 mAh Battery
- ▶ 16GB Memory

경록 이용권 사용안내

- (1) 당 사이트에서 결제 진행
- (2) 결제 완료후 2일 이내 SMS로 이용권 쿠폰번호 수신 (단, 금요일 및 주말, 공휴일 구매시 다음 영업일 발송)
- (3) 경록 홈페이지 (https://www.kyungrok.com) 접속
- (4) 회원가입 후 [나의 강의실]에서 [쿠폰 등록하기]에 쿠폰번호 입력후 수강
- (5) 사은품은 14일 이내 배송 주소지로 일괄 출고됩니다.

사/업/주/관/사

에스엠 온라인 문의: 02-581-4353

결제사이트 안내 www.smonline.co.kr

“똑똑한 아이에게 지혜를 더하는 융합사고력 교육프로그램 XingQ”



XingQ 놀이교구와 Q활동지

크리플, 두뇌스트레칭 놀이교육시스템 마련 아이들의 성취감·자신감 갖도록 놀이 구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 (주)크리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합 사고력 두뇌스트레칭 놀이교육시스템인 XingQ를 출시했다.

XingQ는 주어진 상황의 개념적 이해로 자율성, 창의성, 응용력 및 융합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하는 자기주도적 두뇌스트레칭 놀이교육 시스템이다.

복합문제해결력, 비판적사고능력, 분석 및 의사결정능력, 공감인지력과 분별력, 독해력과 인지력 등의 카테고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개발의 요소·이며, 호기심 자극을 통한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내재된 개념을 반복 경험하도록 구성된 콘텐츠인 Q활동지는 XingQ의 놀이교구와 연동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주)크리플의 교육이사는 “유아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준별(3~7세) 콘텐츠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쉽고 편리하게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

으며, 재미있는 놀이활동을 통해 저절로 체화되는 효과는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유익한 학습교구재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미 현장테스트에서 아이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또한 “유아시기가 융합사고력을 키우는 최적의 시기이고 성취도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면, 아이들이 즐거움과 열정으로 생각의 그릇을 키워 4차혁명시대에 적합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품출시로 바쁜 일정의 연속에도 회사 구성원들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가득해 보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임은채 대표는 “유아교육기관용 제품 외에도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수준별 시리즈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특허권리 및 특화된 콘텐츠를 준비해 온 만큼, 글로벌 브랜드제품들과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파워로 자리매김 하는것이 (주)크리플의 야심찬 포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XingQ

똑똑한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플러스하자 !

특허 10-2020-0016086
특허 10-2020-0016067



문의 02 6332 9902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개선

신고자 편의 및 예측가능성 높이는 권리 찾기 본격화...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 신고기한 최대 15년까지

세종교육의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권리 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급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이득 및 재정 손실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급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이득 및 재정 손실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의회의 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일반부조리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급품,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행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천

만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각 7년 이내,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통지의무를 두어 신고자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종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니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기준(지급최고한도액 300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부조리행위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 우편, 팩스,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내용의 비밀 및 신고자의 신분에 조례에 따라 보장된다.



마을 학교가 주도하는 방과후 활동

충남교육청, 2021 '마을 방과 후 돌봄' 설명회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1년부터 12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마을 주민이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8일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추진 일정,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원방안 등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이번에도 모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군 단위 민관학 협의체가 중심이 돼 2021 마을 방과 후 돌봄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에서 '아이 돌봄'의 문제는 학부모에게 가장 큰 고민이다.

마을 학교가 주도하는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은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학교 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번도 교육 혁신 과정은 "감염병 사태가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의 어린이를 돌보는 '마을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시작한 '충남 행복 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현재 430여 명의 마을 교사가 110개 마을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마을 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문형기자 lmh@

"투명하고 청렴한 마음 담았어요"

대전서부Wee센터 청렴스티커 제작 및 소식지 발행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음) Wee센터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대전서부 Wee센터 청렴 스티커를 제작하여 Wee센터 소식지와 함

께 배부했다. 대전서부Wee센터는 청렴스티커 제작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함께해요 청렴한

서부Wee'라는 스티커에 담긴 슬로건처럼 따뜻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적재적소'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서부 Wee센터 1차 소식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시했던 서부Wee센터의 특색사업인 나·누·라 프로젝트 관련 활동내용들이 수록되었으며, 청렴스티커를 부착한 홍보물과 함께 서부 관내 초·중학교(127교) 및 협약기관(44기관)에 빠짐없이

배부하여 Wee센터 홍보는 물론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청렴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영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과장은 "청렴은 습관이며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렴 스티커와 Wee센터 소식지를 만든 작은 정성이 서부Wee센터 홍보뿐만 아니라 서부 교육 가족의 청렴 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학교 만들기

[중국어 특성화교실 프로그램]

(S2B 물품번호 201903158708607)



**EBS생생말들중국어
교재 20세트**
1세트 구성 : 교재 12권 + CD 12장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1세트
(영상콘텐츠 + E-Book)**
1테라 용량의 외장하드에 모두 탑재



**중국어 전자책(e-book)
20copy**
8기가 USB에 탑재

교육연합신문과 중국 국영언론 **흑룡강신문사**

"중국어 특성화교실" 구축 학교에

2,000만원 상당의 교육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대전교육청, 교육정책사업 정비 스타트

교원업무경감 실무추진단 On-Off 블렌디드 협의회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8일 교육정책사업 총괄제와 일몰제 실시를 위한 2020 교원업무경감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나섰다. 교육정책사업은 교육청이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학교의 업무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와 관련된 교육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대전시교육청 소속 인원은 대면 참석하는 Off라인으로, 지원청과 직속기관 인원은 웹기반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On라인으로 참석하여 함께하는 블렌디드(Blended) 방식으로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대전교육청 고덕희 교육정책과장은 "교육정책사업의 정비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밝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융합한 블렌디드(Blended)방식의 협의는 업무경감이라는 회의 주제와 매우 잘 어울린다.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경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문형기자 lmh@

충남교육청, 제3기 도민감사관 출범

7월 역량강화 연수 거쳐 8월부터 현장감사 참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7월 제3기 도민감사관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충남교육청 제3기 도민감사관 출범을 알렸다. 제3기 도민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7월 중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8월부터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과 함께 현장 감사에 참여한다. 도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남교육을 진단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임기를 시작하는 3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민감사관 활동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 감사관이 지닐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교육계에 간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민감사관은 지난 2016년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을 시작했고, 4년 동안 관내 350여개 기관 감사에 참여해 학부모 등 외부 고객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문형기자 lmh@

수원시, 보육·아동시설 급식 위생·아동학대 특별점검

어린이집 1천1개·지역아동센터 63개·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등 확인...재학대 우려 아동 점검도

수원시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내 모든 보육·아동 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아동학대 방지 특별점검을 한다. 또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사례관리를 하는 '재학대 우려 아동'을 특별점검한다. 위생·아동학대 방지 특별점검은 8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위생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1천1개소, 지역아동센터 6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등 1천67개소다. 아동학대 방지 점검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1천58개소에서 이뤄진다. 어린이집 위생 점검은 급식·안전·

방역 등 3개 분야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지역아동센터는 유통기한 준수, 조리기구·시설 등을 점검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폐기하고, 위생 관리에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점검에서는 CCTV 운영 실태, 보육 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수원시가 예방점검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의 자료를 분석해 파악한 '고위험 아동' 520명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와 양육 환경을 직접 점검한다. 이때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재학대 특별합동 점검'은 7월 29일까지 수원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각 기관이 사례 관리 중인 아동을 자체 점검한 후, 학대 정황이 파악되면 경찰과 동행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재학대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피해 아동은 분리 조치해 보호한다. 유해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병한 후 보육 시설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철저하게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재학대 특별합동 점검'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조치"라며 "주변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름 나뭇잎아 놀자!' 작은 유치원 수업이야기

상주 낙서초병설유치원 수업공개

상주 낙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해숙)은 7월 9일 신나는 여름 생활주제에 맞춰 '여름 나뭇잎아 놀자!'라는 수업공개회를 실시하였다. 자연이 가득한 환경으로 구성된 유치원은 매일 바깥놀이 시간에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나뭇잎들을 가지고 크기 순서, 모양 순서대로 나뭇잎을 찾는 놀이와 자유롭게 나뭇잎을 이용하여 만든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나뭇잎을 가지고 아이스크림과 수박, 참외, 체리를 만들고 입마하고 내가 행복하게 먹는 모습이라는 유아도 있었고 시원한 여름을 위해 무시무시한 나뭇잎 괴물과 마녀를 만드는 유아도 있었다. 김해숙 원장은 어린 유아들이 나뭇잎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상상력에 놀라며 유아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놀이 활동을 지지해 주었다. 박지혜 기자 pjh@

여름철 어린이 먹거리 안전 철통방어

여주시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위생 점검

최근 발생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식중독과 관련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영양사 등 전문가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위생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여주시보건소는 여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부터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1년에 2~6회 조리실 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시행해 위생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박옥진 여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여주시보건소의 전문적인



지원과 센터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성과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센터 운영에 전력을 기울여 시 어린이집을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공·사립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

북구 관내 유치원 86개원도 17일까지 연장 적용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공·사립 유치원 284개원에 대해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춰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6월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위중한 상황에서 유아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광주시·방역전문가·교육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북구 관내 유치원 86개원에 대해 당초 7월 12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조처도 17일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북구 특·초·중·고(교3 제외)는 7월 12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북구

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초·중·고교는 7월 6~15일 전체 학생의 1/3 내외가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내외가 등교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유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280개원에 대해 17일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유치원 교직원들은 위중한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교원 위한 온라인 연수 새 장 열다

창녕유치원, 줌 화상 원격-개정 누리과정 놀이 연수 실시

창녕유치원(원장 허정숙)은 '창녕지역 거점유치원 개정 누리과정 교원 연수'를 줌 화상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했다. 연수는 창녕지역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7월 8일에는 교육과정 교원, 9일에는 방과후과정 교사를 대상으로 각 2부로 나누어 실시했다. 창녕유치원은 지역거점유치원으로서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지역 교원들의 연수에 대한 열망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공동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줌 화상으로 원격 지원했다. 이날 연수 강사 이미경(이령 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사)은 현장에서의 개정누리과정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영상으로 만난 교원들과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교육공동체와의 열정을 함께 나누었다. 1부 주제 '놀이! 놀이로 만나다'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사례를 통해 놀이 주제, 놀이 전개 과정, 유아들의 상호작용, 놀이의 몰입 정도 등 놀이에서 배움의 경험을 통해 유아의 삶을 이야기하

고 있는 놀이 사례를 소개했다. 2부 주제 '놀이 중심 수업 함께 풀어가요'에서는 현장에서의 놀이의 계획, 놀이의 실행, 놀이의 지원과 평가에 대한 고민을 놀이 실행 사례를 통해 함께 풀어나갔다. 특히 '놀이 계획과 지원, 평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교사들로부터 영상 화면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 함께 참여했던 신모 교사는 "화상 연수를 처음 접하게 되어 매우 설렘었고, 아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으며, 놀이의 계획과 기록에 대한 고민을 연수를 통해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또한 연수를 주관한 허정숙 원장은 "코로나19 예방에도 동참하면서 교원들의 연수에 대한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선생님들과 영상으로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한 연수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태백시,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긴급 점검 실시

태백시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 최근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사례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0일까지 관내 17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 식재료 및 식기류 세척·소독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기본사항부터 보관식 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매·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칼·도마 구분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음성군, 어린이집·유치원에 '붙이는 체온계' 배부

음성군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부모와 교사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87개소 3천361명에게 체온계 7만여 개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한 붙이는 체온계는 체온에 따라 3가지 색으로 변하며 37.5℃가 넘으면 노랗게 색이 변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발열 여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가정에서 등원 전에 쉽게 색깔을 확인해 사전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학부모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고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이번 체온계 배부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영유아 자녀들을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해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MSUNG 삼성해상화재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쪽으로만 오는 바람은 이제 그만!!!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장소에서 확산을 통한 고온 냉난방 효과 발생

Before

winfan 장착 전

직바람으로
한정된 공간만 냉·난방

After

winfan 장착 후

사방으로 바람을 확산시켜
고온 냉·난방

제품 특징

- 경쟁제품 대비 적은 부품수 (빠른 조립이 가능하고, 고장이 적다.)
- 날개이탈 및 날개각도 변형이 없다 (튼튼한 부품 및 내구성 강한 제품구조)
- 바람각 제어장치를 통한 바람각 조절가능

근린시설 실내환경

대형마트, 편의점, 미용실, 병원	사무실, 주택, 상가, 음식점, 원룸	시청,구청, 군청,도청, 주민센터,경찰서	교육기관	공공시설	숙박업소
			대학교,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박물관, 터미널,공항, 로비	호텔, 모텔,펜션, 리조트,콘도

구매가격: ₩137,500 (VAT포함)
설치비: ₩15,000 (VAT포함)

전기로
년 **20%**

겨울철 실내온도 2도 ↑
여름철 실내온도 2도 ↓

소나파 [SONATA] 고객센터 : 070-4166-3516 팩스 : 053-383-5018 E-mail : modus1223@naver.com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학교장터] S2B 물품번호 201905198933179 무동력 윈팬



김일성의 아이들

KIM IL SUNG'S CHILDREN

감독 김덕영

TOP SECRET

스탈린의 아이들에서 김일성의 아이들로
살아가야 했던 1950년대 동유럽
북한 전쟁고아들의 애잔한 삶의 이야기

2020년 6월 25일 개봉

프로듀서 이수영, 유준희 / 각본, 편집 김덕영
촬영 김덕영, 이수영 / 음악, 작곡 안지환 / 영어 자막 김지원
출연 제오르제타 미르초유, 스타니스와프 바할, 조단 바에프, 할리나 도백
제작, 배급 다큐스토리

광주, 초·중·고 1/3, 2/3 병행수업 여름방학 전까지 연장

북구 특·초·중학교 17일까지 원격수업 연장 운영 장항국 교육감 호소문 통해 모임·집회 등 자제 당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체 특·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3, 2/3 병행수업을 당초 7월15일에서 여름방학 전까지로 연장한다. 이 같은 결정은 광주시와 교육

부,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초·중학교의 경우 여름방학 전까지 전체 학생의 1/3 내외가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내외가 등교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7월 10일까지 전체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북구 관내의 경우 특·초·중학교(특수학교 2개교,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7개교)는 7월 17일까지 일주일 더 원격수업을 연장 운영한다. 반면 고등학교 20개교는 기말고사 등 학사 일정을 감안해 13일부터 2/3 내외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한편, 장항국 교육감은 지난 9일 광주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감

안해 '광주교육가족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장 교육감은 호소문을 통해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주 사이에 급증해 교육청에서는 광주시와 경찰청, 전문 의료인들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당분간은 모임이나 집회 등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는 우리 주변에 있고, 학원, 종교시설, 사우나, PC방 등을 이용했다"며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하고 있어서 답답하겠지만 부모님과 선생님 지도에 잘 따라주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개인 교습이나 학원 수강하는 것을 자제해 주고, 선생님들은 그 동안 잘해주신 것처럼 아이들 지도에 보다 세밀한 관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교육청,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집중점검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4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133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인권교육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집중 점검은 최근 체육계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방안으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근절, 휴식권 보장 등 인권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대면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학교운동부 현장 컨설팅 등 온라인 교육과 운동부 관계자 현장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8월부터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제로(Zero)를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20명 내외의 소규모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역할극 체험 등 학생선수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이번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내 잠재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조선대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몽골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

몽골 헨티아이막 칭히르만달 슝 지역주민 대상 국제보건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이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몽골 헨티아이막 칭히르만달 슝 지역에서 '지역주민 대상 심혈관 건강 검진·보건교육 및 지역 아동 대상 구강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보건리더십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선대학교와 현지 협력대학인 몽골민족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진과 간호학과 학생의 교류사업이다. 지난 3년간은 조선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였지만, 특히 올해는 COVID19로 인해 몽골민족대학교 의과



대학, 간호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단독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에서는 몽골민족대학교 간

호학과 학생 14명(남성 13명)으로 구성된 학생 봉사단과 몽골민족대학 간호학과 교수 및 의료진 등이 연수단이 되어, 몽골 헨티아이막 칭히르만

달 슝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연수단은 지역주민들의 심혈관 건강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 측정기, 심장 초음파 장비, 인바디 신체조성분석기, 혈당 및 소변 검사 키트 등의 첨단 의료장비를 갖춰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검진 결과를 분석해 봉사단의 의료진에 의한 대상자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몽골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암 예방률은 높으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몽골의 의료현실을 반영해, 암 예방 7대 수칙을 캠페인으로도 알렸다. 이외에 지역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불소 도포를 진행하고 시정각

자료를 활용하여 구강위생의 중요성과 관리법도 교육했다. 연수에 참여한 텔게르체체 학생(간호학과 2학년)은 "COVID19로 인해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돼 예비 의료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몽골민족대학교 의과대학 셋대돌람 대학장은 "지난 3년간의 조선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의료진들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보건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은 지난 5월 사업단 활동을 통해 몽골의 간호학 국정교과서를 연구, 개발하여 화제가 됐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등록금 반환문제 격화 속...총장-학생 공개토론회 자리 전남대 "학생지원금 방안 찾겠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병석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주요 국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 국립대 총장이 등록금 문제 등을 놓고 학생들과 공개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전국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석 전남대총장은 지난 7월 1일

오후 5시 학내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각 학과(부) 대표, 학생중앙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등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를 갖고, 방역, 학사, 재정 등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정병석 총장은 이 자리에서 "등록금은 아껴쓰고 남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대학 예산은 시설유지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고, 생활관 입주비나 언어교육원 수



강요 등 수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밝힌 뒤, "하지만, 집행이 비효율된 사업비 등 사용 가능한 자투리 예산을 모두 긁어모아 교직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 학생들은 "대학장이 학우들과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줘 고맙다"면서도 "사이버 강의 수강에 등록금을 전혀 부담하는 것은 아깝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조선대 주말교육기부 프로그램 호평 SW중심대학사업단-한전KDN-전남도교육청, SW코딩 기부활동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한전KDN과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해 운영 중인 '2020년 SW코딩교육 주말교육기부활동'이 참여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SW코딩교육 주말교육기부활동'은 전국 최초의 산·학·관 협력으로 이뤄진 SW·AI교육 지원확대 프로젝트로, 2018년 SW중심대학 우수 대표사례 사회적 성과부분에 선정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선 '제3기 SW교육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COS 1급, 2급, 인성코딩지도사 1급, 인플러그드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조선대

학교 IT융합대학 20명 학생들이 강사가 돼 활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도 6개 중학교(나주세지중, 남평중, 매성중, 다시중, 화순중, 담양여중)에서 1년 동안 주말에 총 20시간의 AI-SW 코딩교육이 펼쳐진다. 나주 세지중학교 주말교육기부활동에 참가한 박주분(조선대 IT융합대학) 학생강사는 "SW교육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가 돼 AI-SW코딩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말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2018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쌀

대상



한눈에 반한쌀
해남옥천농협

최우수상



대숲맑은쌀
담양금성농협

우수상



나비쌀
함평군농협

우수상



황토랑쌀
무안군농협

우수상



수호천사건강미
고흥중앙농협

장려상



프리미엄호평
강진군농협

장려상



세계적이라는집
영광군농협

장려상



녹차미인쌀
보성군농협

장려상



달마지쌀골드
영암군농협

장려상



갯벌여운쌀
북신안농협

맛있는 전남쌀을

남도장터 www.jnmall.kr

에서 구입하세요



전라남도

JeollaNamdo

영암교육지원청, 고체산소 마스크 필터 보급

관내 모든 학생·교직원 대상 가야금인간문화재 양승희·화공학박사 노만균 부부 기증분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7월 3일 관내 모든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항공 고체산소 마스크 필터를 보급했다.



이번에 보급한 7,000개의 항공 고체산소 마스크 필터는 가야금인간문화재 양승희·화공학박사 노만균 부부가 최근 영암지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기부해 준 방역물품으로서 영암교육계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하여 각급 학교별로 신속히 배부하게 된 것이며 교육계와 별도로 영암군청에도 1,000여 개를 기증했다.

우주국(NASA)의 우주선 추진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고체산소 개발 성과를 내고 세계 최초로 민간용 고체산소를 독점적 신기술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증자 노만균 박사는 “이번에 영암의 학생·교직원들께 드리는 본 제품은 우주선 속에서 우주인의 호흡 전용 기능을 위하여 개발한 고체산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균기능을 더 보강·

강화하여 새로 개발한 신제품으로서 필터 부피쪽 사이에 산소발생제 OGN이 필포와 혼합형태로 충전되어 있고 그 부분이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항공 고체산소 마스크 필터를 전달받은 삼호중학교(교장 최진숙) 3학년 강하람 학생회장은 “기증자 양승희학생님·노만균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주선 속에서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고체산소라니 너무 고맙고 가슴이 된다. 이렇게 귀한 고체산소 마스크 필터를 우리 학생들이 소중하게 사용하여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학생회 차원에서 그 중요성과 고마움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애 영암교육장은 “영암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고귀한 뜻으로 기증해주신 인간문화재 양승희·노만균 박사 부부의 고체산소 마스크 필터 방역물품이 영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귀한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아이들 삶에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의 지표로서 표본이 될 것이다. 인간문화재 양승희학생님과 노만균박사님 부부께서 보여주신 영암에 대한 따뜻한 고고도 진심으로 애정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광양중마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학생회 주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마스크 끼기 생활화 홍보

광양중마초등학교(교장 이상인)는 7월 10일 아침 등교 시간(08:00-08:40)에 전교학생회 주관의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또 나머지 학생들은 준비한 마스크를 나눠주며 ‘마스크 끼기를 생활화합시다’라는 홍보활동을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었다.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자치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느슨해진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교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며, 마스크 배부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 캠페인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학생회 학생들은 미리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예방 포스터를 만들고, 개별 포장된 마스크를 준비하였다.

이상인 교장은 “이번 학생회 주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의 홍보 활동과 마스크 나눠주기 활동을 통해, 광양중마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밝혔다.

캠페인 당일 아침에는 서로 역할을 나눠 몇몇 학생들은 홍보 포스터 및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강진고, 교사들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

서울대 입학본부와 공동 세미나...고교-대학 연계 학생부종합전형 안전적 정착 도모

강진고등학교(교장 정한성)는 7월 7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본부장 김성규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교사들의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교-대학 연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강진고 다산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황태식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강진고를 비롯한 서남부권 고교(관산고, 송지고, 장흥고, 해남고, 화원고)의 교감 및 진학지도 교사들, 이준환 강진고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단위학교의 대비방법, 2015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입학전형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

‘국제경제’, ‘정보처리와 관리’, ‘디자인 일반’, ‘인체의 구조와 기능’ 등의 교과를 신설하고, 이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진학지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열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강진고 영양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등 서울대 입학에 관한 정보들을 내용으로 한 특강이 있었다.

김성규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강건욱 부분부장, 황지영 입학사정관은 이어지는 교사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통해 서울대 입학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었다. 또한 강진고를 비롯한 인근 학교들끼리 ‘기계일반’,

대 입학 관계자들이 강진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망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감사하는 마음 갖기’ 등의 인성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이런 역량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규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명을 받고 돌아가며, 강진고에서 꿈을 실현시키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남겼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곡성중앙초, 교육복지사업 사제동행 텃밭가꾸기 교육

곡성중앙초등학교(교장 강미다)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아이들의 등굣길에 만나는 각 반별 이동식 텃밭은 아이들이 교실에 오자마자 가방을 벗어 던지고 물조리개를 들게 하는 생명의 선물이다.

각 반별로 신청을 받아 방울토마토, 청양고추, 오이고추, 가지, 상추, 부추 등 반별 희망 작물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제동행 텃밭가꾸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등교개학이 늦어 아이들과 모종을 심을 수가 없어서 도입 선생님들께서 먼저 모종을 심고 아이들을 기다렸다. 작물은 무더위 속에서도 잘 자라 주었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선물에 감동을 받은 듯 텃밭을 정성껏 잘 가꾸어 가고 있다.

5학년 조모 학생은 “아침마다 가지가 얼마나 자랐을까? 고추는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학교를 온다”고 말했다. 또한, 최모 선생은 “아이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워봄으로써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인내심 등 인성 함양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코로나 이후의 세계, 온라인서 답 찾다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자체연수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정해자)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체연수를 2회 실시한다.



7월 10일에는 업무담당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위한 기자재와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연수가 진행되고, 7월 20일에는 업무담당자 및 강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연수가 진행된다.

벽지지역 학교가 많은 전남의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라고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의를 맡은 여수문수초 교사 김현수는 “온라인은 어른들에게 낯설은 세상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친숙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후 도서·벽지지역 학교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과 온라인 운영 방식을 연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발 감염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해자 관장은 “미래학자들이 세계적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주기적으로 도래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대면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도서·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Hi-pass

WELCOME! 더불어 배우며 성장하는 강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배움 · 학생 인권 보장 · 학생자치 · 안전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경감 · 배움중심 수업 전개 · 기초학력 보장 · 안정적인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학교 · 질 높은 학교교육 · 학부모 학교 참여 · 진로 진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 활성화 ·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작은학교(모교) 살리기
<p>학생</p>	<p>교사</p>	<p>학부모</p>	<p>지역사회</p>

소통 원활, 강진 교육!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섬마을 아이들 상상이 현실로

신안 비금동초, '무지개 메이커스 Day' 프로그램 진행

다양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7월 9일 신안군 비금동초(교장 김영완)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무지개 메이커스 Day'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서도 알아본다. 분홍 메이커스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은 여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만들기가 진행된다. 반짝반짝 빛나는 LED 머리를 만들고 부쩍 우리 생활과 밀접해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어떻게 이런 소프트웨어 체험행사가 만들어졌을까? 비금동초등학교는 SW 선도학교로서 코로나 19로 다양한 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섬마을 아이들에게 무지개가 상징하듯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노랑 메이커스 공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하는 저학년 아이들이 LED 램프를 만든다. 램프를 조립하고 아크릴판에 나만의 그림과 글을 새겨 넣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램프를 만들어 본다.

파랑 메이커스 공간에서는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인한 우리 생활의 영향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의 측정값에 따라 화면의 표시가 달라지는 장치를 만든다.

김영완 교장은 “우리 학교 전교생이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배움으로 연결되는 장이 되길 바라며,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초록 메이커스 공간에서는 학교 특색인 생태교육과 연계하여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시들어버린 식물의 문제를 고민한다. 자동 물 공급 장치를 만들고 활동지를 통해 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

김영완 교장은 “우리 학교 전교생이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배움으로 연결되는 장이 되길 바라며,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코로나 위기 속 수능 시나리오 준비해야”

전북교육청, 지자체 교육협력 강화 방안 모색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교육청 자체 시나리오 준비도 철저하게” 강조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능이 다가오는데 그때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수능 때 코

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이라는 ‘만약에’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시나리오를 짜야한다”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전국적 차원의 대책이 없어 우왕좌왕할 때 우리 것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중국 역사에 청백리로 길이 남아 있는 회계태수 홍규를 예로 들면서 공직자의 청렴에 대

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홍규가 태수 자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룻배 하나를 얻어 타게 됐는데 사공에게 부탁해서 나룻배에 흙을 실었다. 나룻배에 흙이 실리면서 배가 물 속으로 약간 가라앉게 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홍규도 여쩔 수 없었어’라는 말을 듣도록 의도했던 것”이라며 “그가 노렸던 것은 ‘청백리 홍규’라는 이름조차도 버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청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것”이라며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선 청렴성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대전과 광주 등 전북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9일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지역교육협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협력 및 교육협력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컨설팅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컨설팅에서는 지자체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해 나간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총액은 9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억원(5.5%) 증가했다. 교육환경개선, 글로벌인재양성, 학교급식, 학력신장, 학생복리증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가했으며 학생장학금은 학생수 감소와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지원액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지자체 간 연계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서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자”

전북교육청, 18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위촉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외부위원 22명이 위촉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공약관리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공약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외부위원 22명과 내부위원 15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공약관리위원회는 공약사항의 합리적 관리와 이행 및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공약 이행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18대 전북교육감에 취임하며 ‘새롭게 빛나라 전북교

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 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등 5대 분야 10대 정책 4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앞으로 2년간 추진하게 될 주요 공약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신장에 1,138억 원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361억 원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부모 학교 참여에 1,323억 원,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과 차별 없는 교육 실현에 522억 원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작은 학교 희망 찾기 및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에 169억 원 등 임기내(2018년~2022년) 투자예정액 7,756억 원 중 남은 2년 임기 동안 총 3,5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최선

학교급식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 지원 시범운영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제1의제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변형 식품 배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학교급식 Non-GMO 시범 사업을 희망한 전북 도내 64개교 1만 7,191명이 도내에서 생산된 Non-GMO 식재료(된장, 간장, 고추장, 두부 등)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하여 이 용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에 2억 4,800만원 지원할 예정이며 Non-GMO 식재료 지원뿐 아니라 GMO 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대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Non-GMO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GMO 사용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생산업체의 안정적 판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중·고교 독서 연계 수업 지원

중·고교 교사 대상 8월 4일까지 총 4회 걸쳐 진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중·고교 독서 연계 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도내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그레도, 읽히자! 모든 교과에서 실천하는 독서 연계 수업 연수’를 추진한다. 회차당 80명 내외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비대면 시대 독서 교육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교사의 통합적 독서 교육 실행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제고해 글쓰기, 토론 연계 독서 교육을 통한 의사소 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차별로 주제를 달리하는 다양한 독서교육 콘텐츠가 릴레이식으로 운영되며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교과와 관련한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에 대한 실습 위주로 구성하였다. 교사들은 필요와 선택에 따라 강좌별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산고 김현민 교사의 ‘교과 융합 독서’ ▲글쓰기 교육 전문가 이윤영 강사의 ‘교과 연계 글쓰기’ ▲광동고 송승훈 교사의 ‘비대면 시대에 다시 독서’ 등이다.

“학교문화 혁신이 교육문화 혁신으로”

전북교육청, 혁신(더하기)학교 11개교 재지정 위한 종합평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혁신(더하기)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혁신학교 재지정을 위한 것으로,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6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 등 총 11개교가 대상이다. 이리동초, 함열초, 정읍한솔초, 무주초, 유희학교, 원광여중, 나포중, 김재고, 마령고, 서림고 등 2018년 지정된 혁신학교와 2016년에 혁신더하기 학교

로 지정된 진안장승초가 이에 해당된다. 평가기준은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참학력과 수업공동체 중심의 수업 활동, 민주적·개방적 학교문화, 학교자치·지역사회 협력 중심의 학교시스템 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교육청에서 구성된 종합평가평가위원회가 학교에서 사전 실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평가한 후,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면담 평가로 진

행된다. 평가위원회는 혁신학교의 경험과 열정이 있는 교원과 외부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학교별 종합평가 결과표는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종합평가 결과는 학교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과정 혁신은 전북교육청 민선 3기 혁신학교 정책의 핵심인 만큼 참학력을 기반으로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자율학교 법령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제1기 잼버리 국가대표 출범식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잼버리 국가대표’가 출범했다. 8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1기 잼버리 국가대표 출범식’을 갖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잼버리 국가대표로 선발된 초5~고3 학생 70여명과 학부모, 지도자 등이 참석해 첫 출발을 축하했다. ‘잼버리 국가대표’는 잼버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스카우트 참가 대원 증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WWW.에티켓통.COM
에티켓통
화장실문화 개선 및 여성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S2B 학교장터

에티켓통 | ETIQUETTETONG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INE HYGIENE BINS

[특허 받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향균·탈취·절수

에티켓통XV-ET101은? ♻️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폐생리대를 은나노항균봉투에 담아 은나노수거함에 처리하여 분리, 수거 할 수 있는 향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 피스로 고정하기에 떨어지지 않고 옮겨 달 수 있습니다.
- 매일 수거 봉투를 갈아 끼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은나노 항균위생봉투를 사용해 향균 및 탈취가 가능한 위생제품.

에티켓통 특성

- 에티켓통은 은나노가 함유된 케이스와 봉투로 제작되어 향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하루 보관통이 분리되기에 내용물을 버리기 쉽고, 물로 세척이 용이 합니다.
- 에티켓통은 나사로 고정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 리모델링시 철거 및 이동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오염성 실험과 냉열반복시험, 저온낙하시험 등에 합격된 발명 특허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흉내 낸 단순 쓰레기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입니다.

S2B 학교장터 구매방법

www.s2b.kr 접속 ▶ **물품목록창에 에티켓통이나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입력** ▶ 제품 및 수량 선택

모델명	금액	S2B 학교장터 물품번호
XV - ET101(향균위생봉투 1롤 포함)	66,000원	201707016278840
향균위생봉투 (10롤 X 400매) 1BOX	44,000원	201707016278964
향균위생봉투 (30롤 X 400매) 1BOX	121,000원	201707016278948

* 은나노 향균위생봉투 1롤(400매) (설치 및 VAT 포함)

안전행정부·교육부 : 학교 및 공공화장실 시설관리 개선 공문 발송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1329 (2017.04.14)
- 공공화장실 관리인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관리 개선 협조 요청
- 잘못된 관습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의 휴지통은 비치하지 않을 것. 단,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 비치.
- 휴지통에 용변사용 휴지를 버림으로써 악취 및 실내 공기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화장실 휴지는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무방.

공공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일부개정 2017.05.08 / 시행일 2018.01.01]

제7조 3항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특허 제 10-1120869호] [디자인등록 제 30-0573670호]

“은나노가 함유된 향균과 탈취가 되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교육 혁신’ 토론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원·학부모 참여

유튜브 채널 토론 영상 공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일 도교육청 2청사 북카페에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교육 혁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담아 실질적·현실적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아울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경남, 부산, 제주교육청의 장학사, 교사, 학부모, 타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교육과정 기반 마련 ▲온라인 교육시 적절한 평가 방안 ▲온라인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의 생활지도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박영민 교사(부산 국제고)는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온라인 병행 학교 수업에서 학생 평가로 서열을 정하는 기준 지향 평가가 더욱 교육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박남희(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무국장)는 정보화 격차가 크거나 온라인 수업의 질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교육활동 참여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이 과도하게 요구된

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학습지원이 필요하고, 장시간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따르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진숙 본부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행한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깨는 직접적 경험을 모은 교육 수요자가 겪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도성을 가진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디지털시대 역량 교육 강화, 교수학

습 방식 변화를 넘어선 역량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디지털교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방식을 병행한 이번 토론회는 영상 편집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2일 15시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채널(KEDI TV)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교육관계기관 및 타 시도 교육청의 교직원, 학부모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렴한 의견은 온라인 교육 정책에 반영한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코로나 위기는 공교육에서 디지털시대 역량과 디지털교육체제 등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의견은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실제적인 온라인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전문가 지원 한글교육 꼼꼼하게 챙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한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원인 진단 및 맞춤형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또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과정 내 한글교육이 총 68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단위학교 한글 책임교육을 위하여 초등 1~2학년 ‘한글·셈하기 집중학년제’를 운영하여 한글 미해득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교육만으로 한글해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전문기관(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심리치료사·학습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맞춤교육을 지원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학생당 19회기(1회기 80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미래유권자 위한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력 약속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 오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미래유권자인 학생 및 청소년의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학생 및 청소년의 참정권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정보 공유 △교원 연수, 교육 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미래유권자의 정치문해력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 학생 및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참정권교육을 위한 로드맵

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 21대 총선 이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연구 결과를 도선관위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의견 조사 결과 경남지역 학생 유권자의 투표율은 70.11%로 전국 투표율 66.2%, 경남 지역 투표율 67.8%보다 높은 수치로 선거 등 참정권에 대한 새내기 유권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선거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 부족’, ‘공약에 대해 이해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등의 의견이 높게 나와 올바른 정치정보

의 제공과 함께 참정권교육을 통한 정치문해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치문해력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유권자교육을 담당하는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정권교육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신영식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학생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환경 구축과 확대를 위한 주춧돌이 만들어졌다”면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경남지역의 성숙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도성훈 인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함께 추대...김병우 충북교육감 간사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9일,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충남 부여에서 개최한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에서 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박종훈 교육감과 함께 부회장으로 도성훈 교육감(인천), 장석웅 교육감(전남)이 함께 추대되



박종훈 경남교육감

었으며, 김병우 교육감(충북)이 간사로 추대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노조와

출퇴였으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으로도 추천되었다. 아울러 지난 제73회 총회(5.28.)의 결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장’도 역임하는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학교 사용자가 미래를 디자인한다

경남교육청, 학교 공간 프로젝트 수업 대상학교 교원 역량강화 연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오후 학교 공간 프로젝트 수업 선정 30개교의 관리자와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대상학교 교원의 공간혁신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교공간 혁신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사례 공유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사용자인 학생이 교육주체로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참여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연수의 첫 시간엔 ‘오늘의 학교 사용자가 디자인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교육부 김태은 정책보좌관이 맡았다. 학교 공간 혁신의 주요 특징으로 학습에서 놀이·휴식·균형의 공간으로, 풍경 중심에서 학습변화와 연결된 공간변화, 물리적 공간에 더해 디지털·가상공간으로의 혁신을 들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 교



사와 학생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학습하는 해법의 도입, 그리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미래학교 공간의 조성은 학교교육의 대전환을 이끌어 낼 것을 시사했다.

이어서 창원원동초등학교의 공간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오! 한들 아지트’라는 제목으로 김미경 교사가 발표했다. 지난해에 6학년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하여 공간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한 사례로 학생들이 학교공

간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곳을 스스로 찾고, 구상도, 모형, 설계도 제작의 과정을 거쳐 공간을 구성해 내는 등 학생들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배움의 과정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김경희 학교혁신과장은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공간을 교육과정 속에서 스스로 혁신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미래인재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모교 장학금 1억 기부자 감사패 전달

박종훈 교육감, 진주 수곡초등학교 졸업생 김경열씨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3일,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해 화제가 된 수곡초등학교 졸업생 김경열씨(60·농업)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모

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보여 준 김경열 씨의 높은 뜻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김경열 씨는 “모교의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졸업 이후에도 모교를 잊지 않으시고 평생 농사를 지어 모은 1억 원을 기부해 주신 김경열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탁한 1억 원은 학생들과 동문들에게 모교 사랑의 귀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해외 수력발전소 건설

스마트 원자로 연구개발

SMART

한수원씨! 다음엔 어느 나라에 진출할 거야?

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한수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

대구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공모 사업 선정

경기·충북과 함께 선정 35억 특별교부금 지원받아...창의적 미디어 활용 문화 확산 기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육부가 추진한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35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의 학교교육미디어센터 공모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6일 대구, 경기, 충북 3개 교육청이 최종 선정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 67억으로 서진중학교 후적지를 활용해 설립 추진 중인 (가칭)예술융합창작지원센터와 연계한 '예술 창작 활동 기반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미디어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종 선정된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육청 내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융합인재과(오지석 장학사)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생활문화과(김신경 장학사) 간 협력을 통해 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한 대구시교육청의 협업 시스템은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서진중학교 후적지(서구 서대구로45길 22)에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후 사전 운영 시설 점검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사전 운영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총 4층 규모, 연면적 6천600㎡로 ▲1층은 지역민을 위한 상시 개방 공간인 퍼포먼스존, ▲2층은 미디어와 메이커 교육의 융합 공간인 메이커존,

▲3층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 교육 공간인 미디어존, ▲4층은 미디어와 예술의 융합 공간인 아트존으로 특색 있게 꾸며질 계획이다.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창의적 표현 역량을 길러주는 미디어 생산 영역, ▲비판적 이해 역량을 길러주는 미디어 소비 영역, ▲소통과 공감 역량을 길러주는 미디어 성장 및 확산 영역에 예술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합합리믹스, 웹툰 및 애니메이션, 유튜브크리에이터 등과 같은 창작 활동 프로그램에 미디어 윤리 교육, 저작권 교육을 융합 시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미디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

정이다. 또한 창의적 미디어 소비자(Prosumer) 육성을 위한 교원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및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예술 기반 창작 활동과 융합된 입체적 미디어 교육을 통해 창의적 미디어 활용 문화를 확산시킬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대구에 설립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미디어 교육 거점이자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될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성공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pjh@

'소통의 날개를 달고 더 높게 도약해요!'

상주은척초, 원격 화상수업 운영

상주시 은척초등학교(교장 김진탁) 4학년 학생들은 10일 원격수업 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원격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과 화상수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상주 은척초등학교와 안동 녹전초등학교는 복식 학급 및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 공유가 힘들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급간 소통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날 원격 화상수업을 동화책을 읽은 후 이어질 내용 상상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O.X퀴즈 맞추기를 진행하며 사건의 흐름을 이해해보고,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며 다양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사고력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에 참가한 은척초 박모 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뻐요. 친구들과 상상한 이야기가 기발하고 재미있었다. 다음 소통의 날에는 친구들에게 상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요"고 했다.

박지혜 기자 pjh@



"내가 바로 119소년단! 안전 실천해요"

김천동신초, 대광 119 안전센터와 함께 하는 소방 안전 교육

7월 10일 김천동신초등학교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대광 119 안전센터의 도움을 받아 119소년단(강태운 외 35명)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소방훈련에는 소방 펌프차량을 이용한 방수포 시연 및 학생 체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호우주의보로 모든 활동이 실내교육으로 변경되었다. 그로 인해 시청각실에서 일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주택용 단독 경보기 등 다양한 소방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 교육과 심폐소생교육이 이루어졌다.

119소년단 학생들은 금일 실시된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방법을 익혔으며, 현지 소방관들의 협조 아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모의 훈련 과정에서 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날 119소년단의 활동을 지켜 본 학교장은 "오늘 이루어진 교육은 어린이에게 효과적인 화재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안전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천희 기자 kjh@

김천한일여중, 평화 통일 위한 한걸음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챌린지 최우수상 수상

김천 한일여자중학교(교장 이자명)는 6월 15일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대국민 이벤트 '평화 챌린지'에서 '휴전선 너머로'라는 영상을 발표하여 최우수 영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영상은 국어과 교사 김선일이 1학년 주제선택 국어 수업에서 '통일'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랩 가사를 쓰고 랩을 녹음하는 활동을 하는 도중에 김선은 학생과 김보영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제작하게 되었다.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비트와 스웨그 넘치는 랩 가사가 어우러져 완성도를 높였고, 남과 북이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하여 서로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휴전선을 넘나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노래이다.

'평화 통일 교원 학습 공동체' 대표 교사이자 방송반 지도 교사인 이태훈은 방송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영상을 제작 및 편집하고 유튜브에 공개하며 '평화 챌린지' 이벤트에 참가하였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 영상은 실시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학생과 학부모,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1학년 김선은 학생은 "평소 통일에 대해 생각을 한 적



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통일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지금은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지도 교사 김선일은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하는 이번 영상 제작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며, '평화 통일 교원 학습 공동체' 교사들의 응원 및 협조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이자명 교장은 "이번 평화 통일 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꿈과 끼를 개발하고,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일여중의 '평화 통일 교원 학습 공동체' 교사들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국어과, 도덕과, 미술과, 과학과, 역사과, 수학과, 음악과, 정보과 등 교과 융합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수업과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김천희 기자 kjh@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자율·전문성 강화

개정 법령·임원 관리 규정 등 사전 안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법인에 개정 법령과 법인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사전 안내해 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법인에 대한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먼저, 2020년 하반기 학교법인 임원 만료자 현황을 해당 법인에 안내해 임기 만료 전 후임 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법인 임원의 임기는 2~5년으로 관할청에서 미리 만료예정자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적기에 임원을 선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 만료자 현황과 법인 임원 관리에 필요한 규정도 안내한다. 임원 취임 신청과 임원 관리에 필요한 법 조항과 관련 규정, 절차 등을 안내해 임원

취임 신청을 할 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토록 하며, 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학기관 중요 법률인 '사립학교법'의 최근 3년간 개정사항을 안내 함으로써 법인과 학교에서 변경된 최근 법령을 적용토록 하며 법인 정관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임원결원을 최소화하고 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 관련법의 최신 변경사항을 학교와 법인 운영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법인 임원 관리와 사학기관의 전문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구 기자 chg@

상주상산초, 6학년 대상 '어깨동무 진로캠프' 진행

상산초등학교(교장 김주인)는 7월 9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깨동무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꿈과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해당 진로교육을 통해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였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관한 고민이 많기에 자기주도적학습을 위한 교

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진로캠프에서는 EBS 진로전문강사진이 '자기주도적학습'을 주제로 놀이에서 배우는 학습, 복습과 기억하는 법, 학습노트 기록하기 등의 다양한 자기주도적학습 방법에 대해 강의와 실습 위주의 교육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학생정신건강지킴이 아이스캔

학생들의 스트레스!! 방치하면 병이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폭력, 증오로 고생하는 학생들! 집중력, 기억력향상,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세계38개국 특허출원" - 아이스캔 슬립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케어제품 시각, 청각등을 활용한 오감만족. 조용한 효과음, 뇌파, 자연음악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성우의 내레이션. 과학과 감성이 함께하는 아이스캔 콘텐츠내레이션이 스트레스 및 심리적문제에 탁월한 효과!

약물부작용없이 우울증, 스트레스해소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안구운동과 심리요법을 과학기술로 제한한 최첨단 "아이스캔 슬립"을 사용 경험자의 한사람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 ☑ 학생들의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강화시켜줍니다.
- ☑ 집중력을 유지시켜 학습능률을 향상시킵니다.
- ☑ 과도한 긴장과 산만한 학생들의 정서집중에 도움을 줍니다.
- ☑ 맑은 정신과 최적의 두뇌상태를 유지, 안전한 학습을 도와줍니다.
- ☑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릴렉스시켜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심신안정, 숙면유도 명상 콘텐츠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해소 100여가지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심리상태에 따라)선택하여 활용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OWN, 교우관계 개선, 마음 힐링, 과로, 집중력 향상, 불면증, 학습능력 향상, 웰빙, 우울, 명상, 자살 예방, 심신안정, 속면

아이스캔 eye scan nca

FIND: 아이스캔 GO

"아이스캔슬립"은 청소년,수험생들의 심신안정과 집중력 강화와 스트레스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이스캔슬립"은 의뢰기기가 아닙니다.

민주시민 의식을 지닌 당당한 함평인재 육성

함평교육지원청 탐방



김완 교육장



상교육과 무상급식도 대폭 확대했다. 또 차별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과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놓여온 통학 차량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주민참여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군민의 교육활동 확대에 주력하여 현장 기반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합학부모회를 운영하여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연수, 연합학부모회 전용공간 구축을 준비하는 등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함평연합학부모회에서는 직접 제작한 사람의 마스크 2,000장을 각 학교에 배부하기도 했다. 함평에는 마을형(8교), 학교주도형(2교), 센터형(1교)의 마을특성에 따라 다양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학교 통합 플랫폼인 마을학교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함평군과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1교 1마을학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함평공공도서관은 공감라이브러리스타트북, 공감독서회, 성인독서회 등 배움으로 함께하는 평생학습 문화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 5대 시책

-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 3대 역점과제

- 민주시민·통일교육 강화
- 학교혁신 전면화
- 함평 역사·문화 바로 알기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고장 함평은 친환경 생태도시이다. 예로부터 유림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곳으로 학문을 숭상하고 충과 효를 중시하는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이다. 특히, 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매우 높은 고장으로 오랫동안 전남 중서부권의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학교를 통합 신축하고, 함평교육지원청을 신축 이전하는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바탕 위에서 '모두가 소중한 혁신함평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760여명의 교직원과 교육공동체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 부임한 김완 교육장을 중심으로 '민주시민의식을 지닌 당당한 함평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교육공동체가 감동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펼치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을 찾아 그동안의 주요 실적과 역점 시책 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업 기간 동안에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목 독서 3주 1권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1:1 전화 영어', 함평영재교육원에서는 학습교과와 교재를 무료 대여하여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최선을 다하였다.

- 수업혁신중심 교원 전문성 신장

수업혁신중심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혁신과 나눔 원격직무연수 14개 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학습 플랫폼 활용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에듀테크 활용 온라인 수업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관내의 모든 학교에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23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업무와 교과중심의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9팀)를 지원하고 있다. 수업선도교사와 함평혁신중심학교(손불서초)와 전남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수업 및 수업나눔활동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기초 기본 학력을 갖춘 당당한 학생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한글 미해독 학생들을 집중지원하고, 함평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코칭단과 학습심리상담사가 맞춤형 학습 상담 활동과 미술심리치료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하여 함평 지역 읍면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마을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지도강사 양성 과정' 45시간 실시하고 있다. 연수 후 여름, 겨울방학 기간 문해력 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

- 미래를 여는 창의융합교육 강화

영재교육원과 외국어체험센터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2층 별도로 이설하여 창의융합인재를 기르기 위한 영재교육과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함평영재교육원은 초 5.6학년, 중 1.2학년생 80명을 대상으로 자연영역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인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도교육과 전통임학식 '속수레'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결혼이주여



성 강사, 거점초 영어체험교실등을 활용하여 영 어수업 및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함평외국어체험센터는 온라인수업 기간 동안 원어민과 1:1 전화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의 희망을 받아 센터방문형과 학교방문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따뜻한 학교를 만드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은 물론 교직원들까지도 내실있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생명존중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과 예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학교별로 특색있는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하고 있으며,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교체육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없는 친환경 급식을 확대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구현하고자 학생 생활 중심의 Wee센터를 운영하고 Wee프로젝트 상담인력의 역량을 높이며 위기

학생 예방 지원에 힘쓰는 등 학생과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상담지원을 강화했다. 나아가 학업 중단 예방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대폭 늘렸다.

3.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학교지원 중심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무를 높였으며, 교육시설·설비 최적화와 교단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직원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신뢰받는 청렴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인사제도 혁신',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역할강화', '공유재산 적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자체급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한 차례 가졌으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도 3팀을 지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4.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무

◇ 3대 역점 과제 구현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따라서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교육이 핵심이지만, 현재의 행복한 교육활동 역시 중요하다. 오늘의 꿈나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야 개인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함평교육지원청은 3대 역점 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민주시민·통일교육 강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초등 학습보조자료'와 '5.18민주화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과정내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와 함께 하는 등교맞이 캠페인 활동,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찾아가는 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함평나비연합학생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학교혁신 전면화

학교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혁신학교의 내실화도 꾸준히 다지고 있으며, 일반학교 역시 학교혁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함평혁신교육지구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및 함평교육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3. 함평 역사·문화 바로 알기

남일 심수택 의병장과 독립투사 일강 김철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애항심을 고취하기 위해 '함평 역사·문화 바로알기'를 특색과제로 삼았다. 초등학교 3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함평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체험하는 '함평 역사·문화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 중이다. 함평의 역사·문화를 공부하고 홍보하는 '함평 역사문화 알리기 학생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함평 설화 탐구하기, 함평지역 홍보 동영상 제작하기, 의병 활동 게시물 전시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완 함평교육장은 "'민주시민 의식을 지닌 당당한 함평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함평 교육가족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1읍 8면을 가진 함평군은 의(義)와 예(禮)를 숭상하고, 맛과 멋은 물론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고장이다.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392㎢이며, 2019년 12월말 기준 1만7천837세대 3만3천722명이 거주하고 있다.

바다와 육지가 공존한 친환경 생태체형 문화관광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함평나비축제'와 '대한민국국향대전'이라는 굵직한 지역문화축제를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함평읍 영수길에 위치한 교육지원청은 2과 10팀으로 구성됐으며, 직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 있다. 청사 내에는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외국어체험센터 등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육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내 학교는 병설유치원 10원이 있고,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4교(사립 1교 포함), 특수학교 1교(사립), 각종학교 1교(사립) 등 모두 24교이며, 2,785명이 재학하고 있다. 함평 관내 공·사립 일선 학교 교직원 수는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을 합해 모두 694명이다.

◇ 5대 시책의 추진

1.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구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에 따라 온라인 수업 집중지원의 달을 운영하였다. 온라인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유능한 강사를 파견하여 적극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중학생 모두에게 헤드셋을 무상으로 배부하여 온라인 수업이

